

2026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 기념
기획 오페라

대구오페라하우스 - 중국국가대극원
공동제작

Rigoletto

Rigolotti

대구오페라하우스 - 중국국가대극원
공동제작

G. Verdi 리골레토

개요

작곡 주세페 베르디(1813-1901)

대본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

원작 빅토르 위고의 희곡 「왕은 즐긴다」

배경 16세기 이탈리아 만토바

초연 1851년 3월 11일, 베니스 라 페니체 극장

형식 3막

언어 이탈리아어(국문/영문자막 제공)

INFORMATION

COMPOSER Giuseppe Verdi(1813-1901)

LIBRETTIST Francesco Maria Piave

AUTHOR Victor Hugo's 「Le roi s'amuse」

BACKGROUND Mantova, Italy, 16th century

PREMIERE Mar. 11, 1851, Teatro La Fenice, Italy

FORM 3 acts

LANGUAGE Italian(Korean/English Subtitle)

주요 제작진

연출 다비데 리베르무어

공동연출 알렉산드라 프레몰리

지휘 김광현

CREATIVE TEAM

DIRECTOR Davide Livermore

CO-DIRECTOR Alessandra Premoli

CONDUCTOR Kim Kwanghyun

출연진

리골레토 Bar. 이동환 레온 김(김한결)

질다 Sop. 장원친 이혜정

만토바 공작 Ten. 유준호 권재희

스파라푸칠레 Bass 류지상

막달레나 M.Sop. 서미선

보르사 Ten. 유호제

몬테로네 백작 Bar. 정제학

조반나 M.Sop. 김예은

마룰로 Bar. 권성준

체프라노 백작 Bass 박준모

체프라노 백작 부인 Sop. 이예지

파지오 Sop. 박주은

궁정 전령 Bar. 김준년

CAST

RIGOLETTO Bar. Lee Donghwan Leon Kim

GILDA Sop. ZHANG WENQIN Lee Hyejung

IL DUCA DI MANTOVA Ten. You Junho Jay Kwon

SPARAFUCILE Bass Ryu Jisang

MADDALENA M.Sop. Seo Miseon

BORSA Ten. You Hoje

CONTE MONTERONE Bar. Jung Jehak

GIOVANNA M.Sop. Kim Yeeun

MARULLO Bar. Kwon Seongjun

CONTE CEPRANO Bass Park Junmo

CONTESSA CEPRANO Sop. Lee Yeji

A PAGE Sop. Park Jueun

COURT USHER Bar. Kim Junnyun

디오오케스트라

대구오페라콰이어

카이로스 댄스 컴퍼니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Daegu Opera Choir

Kairos Dance Company

6 GREETINGS

인사말

8 DOH & NCPA

극장 소개

10 COMPOSER

작곡가 소개

12 EXPOSITION OF RIGOLETTO

작품 소개

16 DIRECTOR'S NOTE

연출노트

17 CHARACTERS

등장인물

18 SYNOPSIS

줄거리

20 SCENIC DESIGN

무대디자인

22 COSTUME DESIGN

의상디자인

24 CREATIVE TEAM

주요제작진

26 CAST

출연진 및 출연단체

36 STAFF

제작진

42 PRODUCTION STAFF

프로덕션 스태프

GREETINGS

인사말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Acting Director,
Daegu Foundation for Culture and Arts

황보란 Hwangbo Ran

존경하는 관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기운이 완연한 4월, 대구오페라하우스 무대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보이는 오페라 <리골레토>는
「2026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여 대한민국
대구오페라하우스와 중국국가대극원(NCPA)이
전 제작과정을 공동 기획·협업한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또한, 최정상급 창·제작진이 참여하여 베르디의 음악이
지닌 깊이와 극적인 긴장감을 섬세한 해석을 통해 한층
더 선명하게 구현하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아시아 오페라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제작 거점 극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해외 공동제작을
지속하며,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세계적인 제작극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예술 역량을 세계와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관객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오페라 선율이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선사하기를 기대하며, 예술적 비전과 열정이
빛어낸 이번 공연이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great pleasure to welcome you to the Daegu
Opera House in this beautiful month of April.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appreciation to all of you for
joining us today.

Today's performance of Rigoletto is presented
as part of the 2026 Korea–China–Japan Year of
Cultural Exchange, and is the result of a meaningful
collaboration between the Daegu Opera House and
the National Centre for the Performing Arts of China.

This production brings together outstanding artists
to illuminate the depth and dramatic power of Verdi's
music. More than a performance, it represents an
important step forward in operatic collaboration in
Asia and reflects our vision of developing the Daegu
Opera House into a global opera hub.

The Daegu Foundation for Culture and Arts will
continue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and artistic
excellence. We greatly appreciate you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I sincerely hope that today's performance will offer
you an inspiring and memorable artistic experience.
Thank you.



중국국가대극원 원장
President,
National Centre for the Performing Arts

왕닝 Wang Ning

경계를 넘어선 예술, 공존을 향한 하모니.
2026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중국국가대극원(NCPA)과
대한민국 대구오페라하우스가 공동 제작한
<리골레토>가 대구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오릅니다.
시대를 초월한 고전을 바탕으로, 예술을 가교 삼아
양국 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베르디 불후의 걸작, <리골레토>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시대를 초월한 음악적 아름다움을 지니며,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 관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온
작품입니다. 이번 공동제작은 중국과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뛰어난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고전적 미학과
현대적 예술 감각을 조화롭게 결합함으로써,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과
운명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중국국가대극원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세계극장연맹(World Theatre Alliance)의
회원입니다. 이번 공동제작은 양 기관의 예술적 비전이
깊이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극장연맹의
결속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페라를 매개로 한·중 양국
공연예술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양국 문화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으며 국제 예술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중국국가대극원을 대표하여, 무대 안팎에서 헌신해
주신 모든 예술가들과 한·중 양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리골레토> 공연이 감동적인
선물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고, 예술의 빛으로
산과 바다를 넘어, 한·중 문화 교류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작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새로운 교류의 여정이자,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Art beyond borders, harmony in coexistence.
From April 24 to 25, 2026, Rigoletto, a co-production
by the National Centre for the Performing Arts of
China and the Daegu Opera House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presented on the stage of the Daegu
Opera House. This production seeks to open a new
chapter in cultural exchange between our two nations
through the universal language of art.

As one of Verdi's masterpieces, Rigoletto offers
profound insight into human nature and enduring
musical beauty. This collaboration brings together
distinguished artists from China, Korea, and beyond,
blending tradition with contemporary artistic
expression, while fostering a rich exchange of artistic
perspectives and creative dialogue across cultures.

The Daegu Opera House is an important partner
of the NCPA and a member of the World Theatre
Alliance. This project reflects our shared artistic
vision and highlights the strength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the performing arts.

On behalf of the National Centre for the Performing
Arts, I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all artists, staff,
and partners in both countries. May this performance
inspire audiences and serve as a lasting symbol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China and Korea.
Thank you.

KOREA DAEGU OPERA HOUSE

한국 대구오페라하우스

대한민국 제작 오페라의 중심, 문화예술의 허브

2003년 개관한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대한민국 최초의 오페라 제작 극장이자,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전문 공연장이다. 1,602석 규모의 객석과 최첨단 무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품격있는 공연과 관객 친화적인 환경으로 국내외 예술가 및 관객들로부터 꾸준히 찬사를 받아 오고 있다. 매년 가을 개최되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오페라 성찬'의 대명사로 자리잡으며, 대구를 '오페라의 도시'로 입지를 다지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한국 공연예술의 국제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Korea's Only Opera-Producing Theatre - a Hub of Cultural Excellence

The Daegu Opera House, established in 2003 is Korea's first opera production theater and one of Asia's leading performing arts venues. With 1,602 seats and state-of-the-art stage facilities, it is renowned for its high-quality productions and audience-friendly environment. The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held each autumn has become synonymous with a "feast of opera" and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Daegu's identity as the "City of Opera". As a key cultural institution representing Daegu, a UNESCO Creative City of Music, the Daegu Opera House continues to lead the global expansion of Korea's performing arts.



CHINA NATIONAL CENTRE FOR THE PERFORMING ARTS

중국국가대극원

중국 공연예술의 중심, 세계를 향한 문화의 창

중국국가대극원(中国国家大剧院, National Centre for the Performing Arts)은 2007년 베이징 중심에 개관한 중국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오페라, 발레, 클래식 음악 등 세계 수준의 공연을 선보이는 중국 최고의 국립 공연예술 기관이다. "호수 속 진주"라 불리는 독창적인 외관은 프랑스 건축가 폴 앙드루의 설계로, 예술과 기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인 문화 랜드마크로 손꼽힌다. 내부에는 대극장, 콘서트홀, 연극장이 갖추어져 있으며, 합창단, 오케스트라, 솔리스트 등을 운영하여 창작 및 해외 우수 작품을 활발히 올리고 있다. 국제 교류에도 적극적인 중국국가대극원은 동서양의 예술을 연결하고, 중국 공연예술의 세계화를 이끄는 문화 외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A Leading Performing Arts Center in China - Cultural Gateway to the World

Opened in 2007 in Beijing, the National Centre for the Performing Arts (NCPA) is one of China's leading performing arts institutions, presenting world-class opera, ballet, and classical music. Known as the "Pearl on the Lake" and designed by French architect Paul Andreu, it is an iconic landmark where tradition and modernity meet. With an opera house, concert hall, theatre, and resident choir, orchestra and soloists, the NCPA produces original works while presenting outstanding international performances. Committed to international exchange, the NCPA serves as a key platform for cultural diplomacy—bridging Eastern and Western artistic traditions and advancing Chinese performing arts on the global stage.



COMPOS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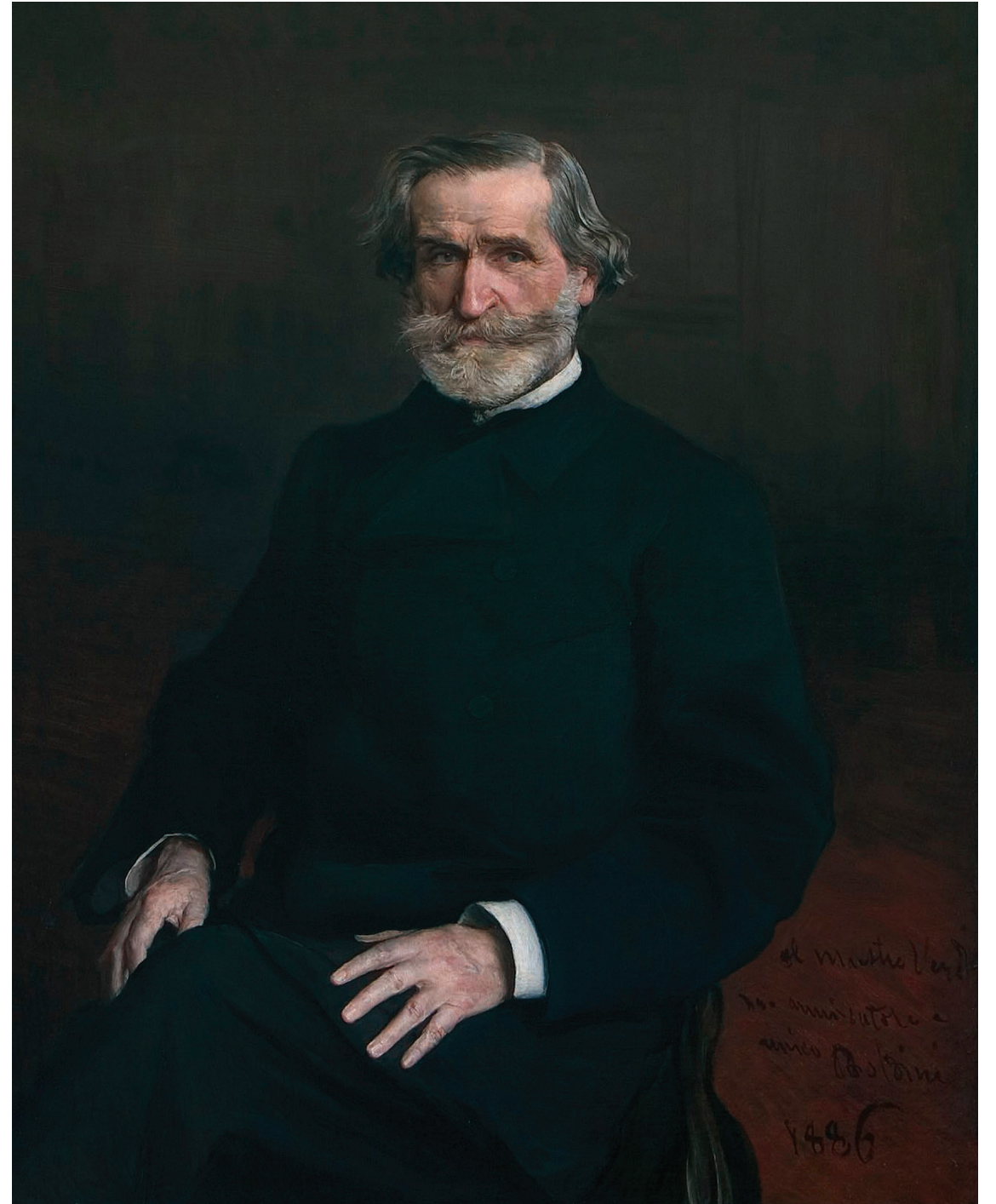
작곡가 소개

주세페 베르디
Giuseppe Verdi
1813-1901

이탈리아 파르마현의 레론콜레에서 1813년 10월 10일 태어난 주세페 베르디 Giuseppe Verdi(1813-1901)는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의 대미를 장식한 작곡가이다. '오페라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작곡가로서 로시니의 뒤를 이어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을 확립하고, 훗날 푸치니에게 계승하였다. 어린 시절 베르디는 음악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1834년 자신의 후원자이자 후일에 장인이 되는 안토니오 바레치 덕분에 음악적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된다. 1836년 베르디는 후원자의 딸 마르케리타 바레치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3월 딸 비르지니아가, 그다음 해 7월 아들 이치리오가 태어났지만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 마르케리타까지 차례로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된다. 2년 만에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고, 당시 작업하고 있던 오페라 <하루만의 임금님>의 초연마저 실패하자 베르디는 작곡에 대한 열망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암울한 절망의 시기에 그를 도와주고 용기를 북돋아 준 사람은 라 스칼라 극장의 감독이자 그에게 첫 계약을 성사시켜 준 바르톨로메오 메펠리였다. 그가 제시한 시나리오와 꾸준한 부추김 덕에 베르디는 그의 명성을 이탈리아 밖까지 알리게 한 첫 오페라 <나부코>(1842)를 완성할 수 있었다.

특히 4막에 등장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오스트리아의 압제 아래 있던 이탈리아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여 압도적인 감동을 이끌었다. 또한 베르디는 <나부코>의 초연에서 주역을 맡았던 가수 주세피나 스트레포니와 새로운 사랑에 빠졌으며, 그녀의 헌신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탈리아 오페라의 황금기를 열 수 있었다. 베르디의 작품은 성악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벨칸토 오페라의 전통을 기반으로 화려한 기교의 아리아와 남성미 넘치는 합창 등으로 구성되어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가 발표한 작품들은 대부분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이유는 작품 속 중심에 '휴머니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짧은 시간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잃어야 했던 개인적인 삶의 아픔에 기인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야망·탐욕·시기·사랑·질투·충성 등 인간 심리를 음악으로 승화시켰다. 주로 통속적인 사랑이야기를 다루어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세속적 사랑의 갈등 등 누구나 삶의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이야기였기에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공감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 오페라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거장으로 우뚝 선 베르디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동시에 가장 높은 명성을 누리며 일생을 보냈다. <오베르토>, <나부코>,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운명의 힘>, <돈 카를로>, <아이다>, <오텔로>, <팔스타프> 등 수많은 명작을 남긴 그는 1901년 1월 27일 호텔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87세로 생을 마쳤다. 그의 장례식이 있던 날, 밀라노 거리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20만 명의 군중이 함께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EXPOSITION OF RIGOLETTO

작품 소개

베르디 오페라의 결정적 전환점, 오페라 <리골레토>

손수연

오페라 평론가/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부녀의 이야기

북부 이탈리아 파르마 근처 작은 마을 부세토의 여인숙집 아들로 태어난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는 타고난 음악적 자질을 인정받아 당시 오페라의 중심도시 밀라노로 진출한다. 1839년 오페라 <산 보니파초의 백작, 오베르토(Oberto, Conte di San Bonifacio)>로 밀라노 라 스칼라 오페라극장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여기에, 고향에서 결혼하고 밀라노로 함께 온 아름다운 부인 마르게리타 바레치와의 사이에 딸과 아들도 태어났다. 경력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베르디의 앞날은 밝아 보였다. 그러나 이듬해 그는 어린 딸과 갓난아기인 아들, 젊은 부인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병으로 모두 잃는 비극을 겪는다. 설상가상으로 1840년 라 스칼라 극장에서 공연한 두 번째 오페라 <하루만의 임금님(Un Giorno di Regno)> 또한 크게 실패한다.

쉽게 이겨내기 어려운 내면의 고통을 베르디는 쉽 없는 창작으로 극복했다. 이후 사랑하는 여인 주세피나 스트레포니를 만나 일생을 해로했지만, 공식적으로 자식을 남기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작곡가 베르디의 자손으로 기록된 인물은 찾아볼 수 없다. 베르디의 첫딸 비르지니아는 생후 17개월에 사망했는데,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 죽은 아들 이치리오보다 그의 상심이 더욱 컸으리라 짐작된다. 두 돌이 다 돼가던 첫 자식과는 잊지 못할 추억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인지 베르디는 유독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베르디의 작품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존재감이 약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부각한 오페라가 많은 편인데 그보다 숫자는 적지만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로 강한 인상을 남긴 작품이 몇 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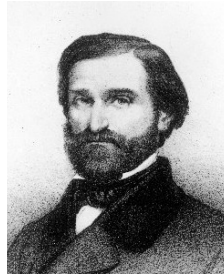
가족을 전부 잃고 새 오페라도 실패해 실의에 빠진 베르디의 성공적인 재기를 이끈 오페라 <나부코(Nabucco)>(1842)는 성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아버지 나부코와 딸 아비가일레의 갈등이 또 다른 중심을 이룬다. 잔 다르크의 이야기를 다룬

오페라 <조반나 다르코(Giovanna d'Arco)>(1845)에서도 아버지와 딸의 반목 관계는 작품의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1853)에서는 부녀 관계가 등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여주인공 비올레타가 연인 알프레도의 아버지에게 부성애를 갈구하는 부분에 나타난 유사 부녀 관계에서 아버지와 딸을 향한 베르디의 남다른 시선을 느낄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작품은 1851년에 발표된 오페라 <리골레토(Rigoletto)>다.

주인공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제목인 '리골레토'는 궁중 어릿광대와 그 딸에 관한 이야기이다. 리골레토는 당시 가장 천시받는 직업인 어릿광대일 뿐 아니라 등이 굽은 척추장애인인데 그의 천사처럼 아름답고 순결한 외동딸 질다는 집에만 갇혀 사는 처지다. 자신을 끔찍이 사랑해 주지만,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아버지가 바깥출입을 엄격히 금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질다가 모르는 사정이 숨어있다.

리골레토가 모시는 주군 만토바 공작은 천하에 다시없을 바람둥이 호색한으로 멋진 외모와 절대적인 권력을 이용해 세상 모든 여자를 가리지 않고 탐해왔다. 신하의 부인까지도 거침없이 농락하는 그는 비난을 받아도 죄의식이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도덕성이 없는 인물이다.

이런 공작의 캐릭터는 첫 아리아 '이 여자나 저 여자나(Questa O Quella)'에 잘 드러나 있다. 흔히 만토바 공작의 노래로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인 '여자의 마음(La donna è mobile)'만을 기억하기 쉽지만, 오페라의 막이 오르자마자 기세 좋게 시작되는 이 곡



1850년경의 베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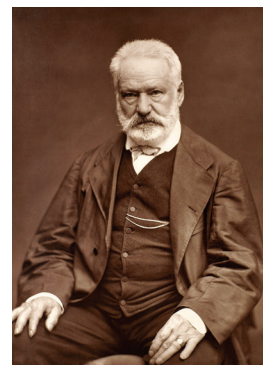
역시 그의 속된 기질을 잘 드러낸 명곡이다. 자신은 비록 멸시받는 어릿광대일지언정 소중한 딸만큼은 고이고이 길러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리골레토의 마음이었을 테지만 딸은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가난한 학생으로 신분을 속이고 접근한 공작과 기어코 사랑에 빠지고 만다. 공작의 가신들에게 납치돼 궁으로 끌려온 질다는 결국 공작에게 능욕을 당하고 잠옷 차림으로 그의 방을 도망쳐 나온다. 그 순간 광대 복장을 한 채 딸을 찾아 궁 안을 헤매던 리골레토와 맞닥뜨리게 되고, 부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한다.

모든 아버지가 그러하듯, 순진한 딸에게 몸쓸 짓을 한 공작에게 리골레토는 복수를 시도한다. 하지만 질다는 자신을 가차 없이 버리고 새로운 여자에게 눈을 돌린 공작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 의지할 데라고는 오직 서로뿐인 아버지와 딸의 마음은 아직도 이렇게 다른 곳을 향한다.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공작 대신 죽음을 맞는 질다를 부둥켜안고 리골레토는 죽으면 안 된다며, 네가 떠나면 나는 혼자라고 호느낀다. 막이 내리면서 들리는 한 맺힌 리골레토의 마지막 절규는 한꺼번에 떠나버린 가족들을 향한 베르디 자신의 외침처럼 들린다.

빅토르 위고 희곡 '왕은 즐긴다'와 검열의 시대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부녀의 처절한 비극을 다룬 이 오페라는 본래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802-1885)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것이다. 빅토르 위고는 실존 인물인 프랑스의 왕 프랑수아 1세를 모델로 희곡 「왕은 즐긴다(Le roi s'amuse)」를 집필해 1832년 상연했다.

발루아 왕가 출신인 프랑수아 1세(1494-1547)는 1515년 즉위한 프랑스의 첫 번째 르네상스 군주로 알려져 있다. 즉위 직후, 그는 이탈리아 정복을 위해 벌인 마리냐노 전투에서 승리하며 군사적 명성을 얻었지만, 신성로마제국 황제인 카를 5세와 벌인 파비아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포로가 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빅토르 위고



프랑수아 1세의 초상화. 장 클루에 1527-1530.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프랑스어를 행정 언어로 지정하여 왕권을 크게 강화하는 등 절대왕정 시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그는 학문과 예술을 적극 후원하고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를 프랑스로 도입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는다. 현재 루브르 박물관의 기초가 되는 왕실 컬렉션을 확대해 훗날 프랑스가 유럽 문화 중심지 중 하나로 성장하는데도 이바지했다. 만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프랑스로 초청했는데 이때 다빈치는 세 점의 그림(모나리자(라 조콘다), 성 안나와 성 모자, 세례자 요한)을 가져와 프랑스에서 <성 안나와 성 모자>와 <모나리자>를 완성하였다. 다빈치가 완성한 세 점의 그림 또한 오늘날 모두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

이 같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프랑수아 1세는 방탕한 사생활로 악명이 높았다. 특히 국왕이라는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 많은 여성을 함부로 탐하며 누구의 딸이건, 결혼한 여성이건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이런 프랑수아 1세가 트리블레(Triboulet)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을 궁정 어릿광대로 삼았다는 것은 역사서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젊은 작가 빅토르 위고는 역사서에서 프랑수아 1세와 광대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 왕과 궁정 어릿광대 사이에 벌어진 도발적인 비극을 희곡으로 창작했다.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들의 실명을 그대로 사용했고, 허구를 더해 프랑수아 1세는 부도덕한 바람둥이에, 그의 궁정은 더없이 타락한 곳으로 묘사했다. 연극은 1832년 11월 22일 파리에서 초연됐지만, 당시 프랑스의 불안정한 정세와 맞물려 바로 다음 날 공연 금지 통보를 받았다. 위고가 분개한 것과 상관없이 연극은 그렇게 잊히는 듯했다.

그로부터 20여 년 후,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는 그 희곡에 매료됐다. 문학적 소양이 뛰어났던 베르디는 셰익스피어나 빅토르 위고, 프리드리히 실러 같은 유럽의 뛰어난 문호들의 작품을 읽고 각색해 자신의 오페라로 작곡한 경우가 많았다. 이미 위고의 작품 중 <에르나니(Hernani)>(1830)를 이탈리아 오페라 <에르나니(Ernani)>로 작곡해 1844년 초연했다. 셰익스피어나 실러 등과는 달리 위고는 베르디와 동시대를 살았던 작가였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베르디의 깊은 조예를 알 수 있다.

베르디는 이 희곡을 발견하고는 크게 흥분해서 대본 작가 프란치스코 마리아 피아베(Francesco Maria Piave, 1810-1876)에게 하루속히 오페라를 위한 대본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한다. 피아베는 이미 베르디 작곡의 오페라 <에르나니(Ernani)>(1844), <두 사람의

포스카리(I due Foscari)>(1844), <아틸라(Attila)>(1846), <맥베스(Macbeth)>(1847), <해적(Il corsaro)>(1848), <스티펠리오(Stiffelio)>(1850)의 작가였으며, 이후에 탄생할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오페라 대본작가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

(La Traviata)>(1853), <시몬 보카네그라(Simon Boccanegra)>(1857), <운명의 힘

(La forza del destino)>(1862)의 대본을 담당하기도 했다. 베르디 대표작의 대부분은 피아베의 대본으로 작곡되었다고 할 정도로 베르디 오페라에 있어서 중요한 작가다. 베르디가 벨칸토 오페라를 탈피하여 새로운 형식의 오페라를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것이 실현되도록 도운 피아베의 공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음악과 드라마의 균형점을 재설정하기 위한 두 사람의 협업은 오페라 <맥베스> 때부터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해 <리골레토>부터 본격화된다.

베르디가 ‘오늘날 최고의 작품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던 오페라의 제목은 <저주(La maledizion)>로 이어졌다. 주인공 이름은 트리볼레의 이탈리아식 이름 트리볼레토로, 원작의 배경과 형태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다. 1850년 4월 피아베에게 편지를 보내 작품을 시작하자고 알린 베르디는 이미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극장과 1851년 2월에 초연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피아베를 끊임없이 독촉한 베르디 덕분에 대본은 빠르게 완성됐다.



라 페니체 극장의 리골레토 초연 포스터



필립 샤페론이 디자인 한 초연 무대 디자인

베르디가 우려했던 대로, 오스트리아 검열관은 비도덕적이며 저속하다는 이유로 공연을 불허했다. 당국의 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본을 보면 국왕은 프랑스의 일개 신사로, 트리볼레토는 척추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으로 바뀌었다. 베르디는 작품이 맛있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인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국왕의 시신을 자루에 담는다는 설정도 삭제해야 한다는 권고에도 베르디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버텼다.

라 페니체 극장과 여러 사람의 중재 노력 덕분에 1851년 1월 초 검열 당국과 베르디는 결국 타협했다. 오페라의 배경을 프랑스에서 이제는 사라진 이탈리아의 소국 만토바로 옮기고 프랑수아 1세는 만토바를 다스리는 곤차가 가문 출신의 공작으로 바뀌었다. 공작이 질다가 있는 침실로 들어가는 장면은 삭제됐고 무엇보다 <저주>라는 제목은 주인공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실제 인물인 트리볼레토의 이름 또한 ‘웃다, 농담하다, 비웃기’ 등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동사 ‘rigoler’에서 따온 리골레토로 바꿨다. 이 드라마가 이제는 없어진 먼 옛날의 이야기라는 설정을 만든 다음에야 공연은 허가된 것이다. 대신 그밖에 모든 캐릭터와 줄거리는 베르디가 바라는 원작 그대로 갈 수 있어 그에게도 나쁘지 않은 거래라고 할 수 있었다.

작곡가 베르디 극적 개념과 중기 3부작의 시작
1842년 오페라 <나부코>를 통해 이탈리아 오페라의 스타로 떠오른 뒤 약 10년의 기간 동안 베르디는 본인의 표현대로 ‘갈리선에 갇힌 노예’처럼 쉴 새 없이 일했다. 이 시기 10편이 넘는 오페라를 작곡했는데 대부분 이탈리아 통일운동을 위한 리소르지멘토(Risorgimento) 계열의 오페라들이었다. 당시 이탈리아 오페라계에 확실히 자리매김하기까지, 베르디는 성실하고도 꾸준한 오페라 극장들의 요구에 맞춘 오페라들을 발표했다. <맥베스(Macbeth)>(1847)처럼 작곡가의 개성을 드러낸

작품도 간혹 선보였지만, 이 시기 작곡된 오페라들은 대개 애국주의를 주제로 한 오페라들이어서 오늘날 자주 공연되지는 않는다.

<리골레토(Rigoletto)>에 이르러 베르디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상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이어서 발표한 <일 트로바토레(Il trovatore)>(1853),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1853)까지 세 작품을 일컬어 베르디 중기 3부작 혹은 베르디의 3중주라고 부른다.

이 3부작은 왕이나 영웅이 아닌, 장애가 있는 궁정 어릿광대, 집시의 아들로 살아온 음유시인, 사교계의 고급 창부 등 소외되고 고통받는 개인의 서사가 강렬하게 펼쳐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극의 흐름 속에서 음악이 자연스럽게 전개되어 음악과 드라마의 균형을 재설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모두 기억에 남는 선율과 대중성이 강한 아리아가 등장해 지금까지 많은 인기를 얻으며 19세기 낭만주의 오페라를 대표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세 오페라를 대중적인 3부작(Trilogia popolare)으로 부른다. 여기서 ‘대중적’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먼저 지체가 낮은 이 세 작품의 주인공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오페라들이 관객이나 대중들 사이에서 누렸던 성공과 대중적 인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3부작은 극적 표현력과 음악적 완성도, 그리고 대중성을 겸비한 베르디 스타일의 시작이자 기준이 되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다.

검열 분쟁으로 인해, 오페라는 계약보다 다소 늦은 1851년 3월 11일 첫 무대에 오른다. 초연은 극적인 전개와 공작의 아리아 ‘여자의 마음(La donna è mobile)’ 덕분에 대성공을 거뒀다. 냉소적이고도 중독성 있는 이 아리아는 다음 날 아침 베네치아 거리 곳곳에서 울렸다고 전한다. 이미 아리아의 인기를 예감한 베르디는 초연 몇 시간 전에야 출연진과 오케스트라에게 아리아를 공개했다. 특히 초연 때 공작 역할을 맡은 테너 라파엘레 미라테에게는 극장 밖에서 멜로디를 노래하거나, 휘파람을 불지도 못 하게 했고, 아예 멜로디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아리아가 공개됐을 때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마음’을 말하지만 <리골레토>에는 이 아리아에 버금가는 아리아와 중창들이 존재한다. 리골레토의 딸 질다가 부르는 ‘그리운 그 이름(Caro nome)’은 서정적이고 고운 음색에다 콜로라투라의

화려한 기교까지 표현해 내야 하는 고난도의 아리아다. 질다가 가진 젊음, 순결함, 청순함이 소리에서 느껴져야 하고, 첫사랑에 빠진 여성의 기쁨과 설렘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표현력도 있어야 한다. 기존 이탈리아 오페라를 혁신하려던 베르디는 벨칸토 오페라 양식의 정수가 느껴지는 이 아리아를 삼입함으로써 전통에 대한 경의를 나타냈다. 그러나 하나의 아리아가 완전히 종결되고 관객들이 열광적으로 박수 친 다음 넘어가는 벨칸토 오페라와는 달리, 질다의 아리아는 그를 납치하러 온 가신들의 함창과 겹치며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드라마의 흐름을 깨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 오페라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리골레토의 아리아 ‘가신들, 이 천벌 받은 놈들아!(Cortigiani, vil razza dannata!)’는 바리톤-베르디라는 공식이 성립되게 만든 명곡으로 꼽힌다. 그토록 귀한 딸이 바람둥이 공작의 꾀에 넘어가고, 귀족들에게 납치를 당하자, 리골레토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면서도 어릿광대 차림으로 궁정에 출근한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귀족들을 태연히 떠보며 딸의 행방을 애타게 찾는 아리아가 바로 이 곡이다. 딸이 공작의 제물이 된 것을 안 리골레토는 눈먼 짐승처럼 포악하게 날뛰다가 다시 무릎을 꿇고 귀족들에게 애원하기 시작한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서야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행동이 장장 8분 가까운 노래와 관현악으로 펼쳐지는데, 격정적으로 움직이는 첼로 파트는 베르디가 추구한 음악과 극의 통합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더라도 가족에게만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만나 부르는 아버지와 딸의 이중창 ‘그래! 복수다!(Sii Vendetta!)’는 주로 사랑 이야기를 노래하던 남녀 이중창이 이처럼 강렬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유형을 제시했다. 마지막 4막에서 리골레토와 질다, 공작과 막달레나가 부르는 2+2 형태의 4중창은 네 사람의 개성과 그들의 복잡한 심리를 음악적으로 뻐어나게 묘사해 리골레토 콰르텟이라 불리며 후대 음악가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특히 자신의 희곡으로 자주 오페라를 만드는 베르디를 못마땅해했던 빅토르 위고마저도 이 부분에서 “내 희곡에 나오는 인물들도 이처럼 동시에 말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감탄했다고 한다. 오페라 <리골레토>는 베르디를 이탈리아 오페라의 ‘인기 작곡가’에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작곡가’로 바뀌게 만든 결정적 전환점이다.

DIRECTOR'S NOTE

연출노트

연출 다비데 리베르무어 Davide Livermore

오늘날 <리골레토>를 무대에 올린다는 것은 권력의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현대적인 잔혹함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이번 프로덕션에서 무대는 관객의 시각적 인식을 전복하며, 현실의 물리적 관점을 뒤집음으로써 뒤틀린 세계의 은유가 됩니다.

출발점은 빅토르 위고의 원작 희곡 「왕은 즐긴다(Le roi s'amuse)」입니다. 피아베와 베르디가 프랑수아 1세의 궁정을 만토바 공작의 궁정으로 바꾸어 그려낸 이 세계에서는 윤리가 사라지고, 군주의 변덕이 모든 것을 대신합니다. 그것은 이미 수직적 기준을 상실한 사회로, 공작의 부도덕함은 단순한 도덕적 결함을 넘어 주변의 존재를 짓누르는 중력으로 작용합니다.

무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입니다. 관점을 뒤집음으로써 눈은 위와 아래가 뒤엎기는 현실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 타락한 궁정의 신하들은 더 이상 당연한 인간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상징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역사라는 바닥에 눌러 있으며, 뒤집힌 세상에서 기이한 각도로 세계를 바라봐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낯선 공간 안에서 리골레토의 기형적 모습은 더 이상 개인의 특수한 결함이 아니라, 폭군을 섬기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상태가 됩니다. 뒤집힌 세계에 산다는 것은 자연의 질서가 소멸한 공포 속에 존재한다는 뜻이며, 궁은 더 이상 보호의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소모시키는 거대한 기계로 변합니다.

“저주”—이 오페라의 진정한 원동력—는 바로 이 왜곡된 건축구조 속에서 시각적으로 구현됩니다. 중심을 잃은 세계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복은 첨단 영상 기술을 통해 더욱 증폭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미지들은 관객에게 도덕적 불안정과 억압의 현기증을 실감나게 전달하며, 권력의 자의성이 유일한 질서로 남은 궁정의 타락을 드러냅니다.

부정한 궁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입니다. 관객은 단순히 권력의 형상을 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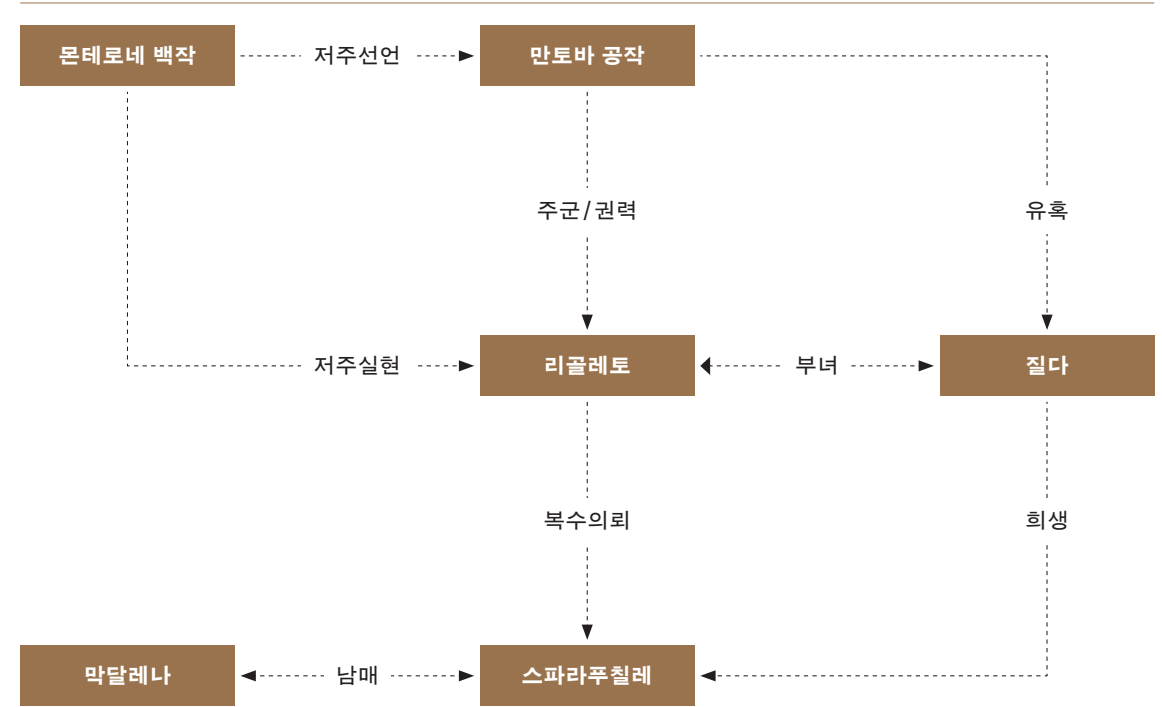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물리적 혼란을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위고가 의도했던 바이며, 베르디가 그의 놀라운 음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관객은 리골레토와 함께, 왕의 쾌락을 위해 거꾸로 뒤집힌 우주 속에서 마지막 수평선의 조각을 절박하게 찾아 헤맬 것입니다. “왕이 즐길 때, 세상은 땅에 엎드린다.”

이 비전을 실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영예이며, 그 감동은 이곳에서 만난 예술적 수준의 탁월함으로 배가됩니다. 한국 성악가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은 크나큰 기쁨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순수하고 강력한 드문 악기이며, 탁월한 기량과 헌신적인 태도에 깊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인 대구에서 <리골레토>를 선보인다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인류의 음악적 유산으로 선택된 이 도시에서, 베르디의 멜로드라마는 다시금 그 보편적 힘을 되찾습니다.

CHARACTERS

등장인물



리골레토
만토바 궁정의 광대이자 질다의 아버지. 냉소적 조롱 뒤에 병적인 부성애를 숨긴 비극의 중심 인물.

스파라푸칠레
청부 살인자. 리골레토의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냉혹한 현실의 대리인.

만토바 공작
쾌락을 좇는 방탕한 귀족. 매혹적인 언어와 노래로 여인들을 유혹하며 모든 비극의 도화선이 되는 인물.

막달레나
스파라푸칠레의 여동생. 관능적이고 현실적인 여성으로, 결정적 순간에 비극의 방향을 뒤튼다.

질다
리골레토의 딸. 순수한 사랑을 믿지만 그 믿음으로 스스로를 희생하는 비극적 여성.

몬테로네 백작
공작에게 모욕당한 딸의 아버지. 그의 저주는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운명의 그림자가 된다.

SYNOPSIS

줄거리

1막 1 만토바 공작의 궁전 연회장

바람기가 심한 만토바 공작은 화려한 연회를 열고, 아름다운 체프라노 백작 부인에게 수작을 건다. 공작을 모시는 궁정광대이자 꿈추인 리골레토는 그의 행동을 부추기면서, 신분의 차이로 화를 참아야 하는 체프라노 백작을 비웃는다. 백작과 신하들은 리골레토가 어린 연인과 산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이용해 평소 그들에게 무례하게 굴던 리골레토를 혼내주기로 한다. 하지만 그녀가 리골레토의 딸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그때 공작에게 딸을 빼앗겼던 몬테로네 백작이 파티장에 나타나 공작과 리골레토에게 저주를 퍼붓고, 체포되어 위병들에게 끌려간다. 리골레토는 숨겨놓은 딸 질다가 떠올라 간담이 서늘해진다.

1막 2 리골레토의 집

저녁이 되어 집으로 간 리골레토는 저주를 떠올리며 질다에게 절대로 외출을 하지도, 집 안에 누군가를 들이지도 말 것을 당부한다. 그러나 이미 매주 교회에서 만났던 어떤 청년(공작)을 좋아하게 된 질다는 리골레토를 미행해 몰래 그의 집으로 숨어든 공작과 마주치고, 자신을 학생이라고 속인 공작과 사랑에 빠진다. 늦은 밤, 체프라노와 신하들이 나타나 질다를 납치하고, 뒤늦게 딸이 사라졌음을 깨달은 리골레토는 몬테로네의 저주를 떠올리며 울부짖는다.

2막 만토바 공작의 궁전

지난 밤 리골레토의 집에서 질다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공작은 걱정이 가득하다. 그때 신하들이 나타나 공작에게 질다를 데려왔다고 알리자, 공작은 기뻐하며 질다가 있는 침실로 간다. 근심을 숨기기 위해 노래를 흥얼거리며 나타난 리골레토는 궁전에 모두가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딸의 행방을 살핀다. 신하들이 공작의 행방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것을 보고 질다가 공작의 침실에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리골레토는 그가 있는 곳으로 뛰어들지만 신하들에게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돌려달라며 애원해 보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잠시 후 질다가 뛰쳐나와 아버지에게 안기고, 공작이 자신의 지위를 속였다는 것과 그녀를 냉담하게 버렸음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때 위병들에게 둘러싸여 형무소로 향하던 몬테로네 백작이 나타나 자신의 저주가 빛나갔음을 한탄하자, 리골레토는 공작을 용서해 달라는 질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주가 끝나지 않았으며 공작에게 잔인하게 복수할 것을 다짐한다.

3막 한적한 교외에 위치한 스파라푸칠레의 여관

리골레토는 공작에 대한 질다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그녀를 데리고 자객 스파라푸칠레의 여관 근처로 숨어든다. 여관에 머물게 된 공작이 스파라푸칠레의 동생 막달레나를 쫓아다니며 유혹하는 장면을 엿본 질다는 배신감에 괴로워하고, 리골레토는 질다를 남자로 변장시켜 베로나로 보낸다. 리골레토는 스파라푸칠레에게 공작을 죽여 자루에 담아줄 것을 의뢰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공작의 시체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는다. 밤이 되어 스파라푸칠레가 공작을 죽이려 하자, 공작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동생 막달레나는 그를 살려줄 것을 간청한다. 결국 두 사람은 자정이 되기 전 여관에 들어오는 자를 대신 죽이기로 하고, 밤늦게 찾아온 낯선 남자를 찌른 뒤 자루에 넣어 리골레토에게 건넨다. 복수에 성공했다고 기뻐하며 강으로 시체를 던지려던 리골레토는 공작의 노랫소리를 듣고, 불길한 마음에 자루를 열어본다. 그러나 그 속에는 스파라푸칠레와 막달레나의 계획을 듣고 공작 대신 죽기로 결심한 딸 질다가 있었다. 리골레토는 크게 울면서 탄식하고, 질다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며 끝내 눈을 감는다.

ACT 1-1 Palace of Duke of Mantova

The Duke boasts of his affair with the wife of Count Ceprano, while Rigoletto, the Duke's hunchbacked jester, mocks the enraged husband. The courtiers plot with the others to punish Rigoletto for his insults, using his young mistress. But nobody knows she is Rigoletto's daughter. At that time, Monterone forces his way into the crowd to denounce the Duke for seducing his daughter and is viciously ridiculed by Rigoletto. Monterone is arrested and puts a curse on Rigoletto. Rigoletto is disturbed by Monterone's curse.

ACT 1-2 Rigoletto's House

Arriving at home, fearing for his loving daughter, Gilda's safety, Rigoletto warns her not to let anyone into the house. When Rigoletto leaves, Gilda encounters the duke she saw in church. He declares his love for her and tells her he is a poor student. After he has left, the courtiers gather nearby, intending to abduct Rigoletto's "mistress", kidnap Gilda. When Rigoletto discovers that his daughter has been taken, he collapses as he remembers Monterone's curse.

ACT 2 Palace of Duke of Mantova

The Duke is distraught, having immediately gone back to see Gilda only to find her missing. When the courtiers returns and tells him the story of how they abducted a girl from Rigoletto's house and left her in the Duke's bedroom, he realizes it is Gilda and hurries off to her. Rigoletto enters, looking for Gilda. The courtiers prevent him from storming into the Duke's bedroom. Rigoletto violently denounces them for their cruelty, then asks for compassion. Gilda returns from the Duke's room. She tells Rigoletto of the Duke's courtship, her abduction, and her deflowering by the Duke. Monterone is brought in to be killed by the Duke's men, and Rigoletto swears that he will be avenged, Gilda begs her father to forgive the Duke.

ACT 3 Sparafucile's inn on the outskirts of town

Rigoletto brings Gilda to the inn on the outskirts of town, where Sparafucile lives. The Duke appears, and Gilda and Rigoletto watch him through the window as he amuses himself with Maddalena, Sparafucile's sister. Rigoletto tells his distraught daughter to leave town disguised as a man and, after she leaves, pays Sparafucile to murder the Duke. But Maddalena urge her brother to spare the Duke, and Sparafucile agrees to kill another person who arrives at the inn, so that he will be able to produce a dead body for Rigoletto. Sparafucile agrees to Maddalena's plan. Rigoletto returns and get the sack, gloats over his revenge. But when he hears the Duke singing inside the club, he realizes he has been duped. He quickly opens the sack and is horrified to find it has been masking the identity of his dying daughter. Gilda dies asking her father's forgiveness and Rigoletto realizes Monterone's curse has been fulfilled.

SCENIC DESIGN

무대디자인



1막 1 / ACT 1-1



1막 3 / ACT 1-3



1막 2 / ACT 1-2



2막 1 / ACT 2-1

COSTUME DESIGN

의상디자인



리골레토



만토바 공작



몬테로네 백작



조반나



마룰로



질다



스파라푸칠레



체프라노 백작



체프라노 백작 부인



파시오



막달레나



보르사



궁정 전령



만토바 공작 부인

CREATIVE TEAM

주요제작진



연출 다비데 리베르무어

Director Davide Livermore

-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역사상 최초 4년 연속(2018-2022) 시즌 개막 공연 연출
- 스페인 발렌시아 레이나 소피아 예술궁전 극장장 및 예술감독 역임
- 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 주빈 메타, 리카르도 샤이 등 세계적 거장들과 협업
- <토스카>, <아틸라>, <맥베스>, <투란도트>, <운명의 힘> 등 세계 주요 극장 대표작 연출
- 스페인 캄포아모르 어워즈, 골든 에스킬루스, 프랑스 비평가 협회상 등 다수 수상
- 영화 '더 오페라!'(2024) 감독 및 로마 영화제 초청, FIFA 어워즈 시상식 총감독 역임
- 2024년 토리노 대학교 영화·공연·미디어 명예 박사 학위 수여
- 이탈리아 공화국 공로 훈장 '이탈리아의 별(Stella d'Italia)' 수훈
- 연극, 영화, 패션, 디지털 실험을 아우르는 융복합 예술의 선구자로 평가
- 2026년 몬테카를로 오페라 <발퀴레>, 로시니 오페라 페스티벌 등 연출 예정
- 현) 이탈리아 제노바 국립극장(Teatro Nazionale di Genova) 예술감독



공동연출 알렉산드라 프레몰리

Co-Director Alessandra Premoli

- 밀라노 대학교 및 베네치아 IUAV 대학교 연극학 석사 최우수 졸업
- 유럽 오페라J(OperaJ) 젊은 연출가 콩쿠르 2위 입상
- 다비데 리베르무어 조연출을 거쳐 라 스칼라 극장, 중국국가대극원(NCPA), 볼쇼이 극장 등에서 주요 프로덕션 재연 연출
- 발렌시아 오페라하우스 <실라>, 인스부르크 고음악 페스티벌 <아폴로와 다프네의 사랑> 및 <이달마>, 바리 페트루첼리 극장 <크레타의 미궁> 등 다수 연출
- 현) 밀라노 신미술아카데미(NABA) 및 모데나 음악원 연출과 교수



지휘 김광현

Conductor Kim Kwanghyun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지휘전공,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지휘과 석사 졸업
- 원주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역임(2015-2021)
-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국립심포니, 경기필, 부천필, 수원시향, 인천시향 등 국내 대부분의 국공립 교향악단과 독일 슈투트가르트 필, 로이틀링겐 필, 남서독일 콘스탄츠 필, 체코 칼로비바리 심포니,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국립극장 오케스트라, 일본 규슈 심포니 등 해외 다수 교향악단 지휘
-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대전예술의전당, 대구오페라하우스, 클래식부산 등에서 제작한 <가면무도회>, <마술피리>, <라 보엠>,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사랑의 묘약>, <운명의 힘>, <카르멘>, <파우스트>, <피가로의 결혼>, <토스카>, <투란도트> 등 20여 편 이상의 오페라 지휘
-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고양아람누리, 성남아트센터, 아트센터인천, 유니버설발레단 등에서 제작한 <돈키호테>, <로미오와 줄리엣>, <백조의 호수>, <지젤>, <호두까기 인형> 등 10여 편 이상의 발레 지휘
- 현) 부산콘서트홀 상주 클래식부산 시즌오케스트라 음악감독

CAST

출연진



리골레토 Bar. 이동환

Rigoletto Bar. Lee Donghwan

-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악대학교 오페라과 마스터 졸업
- 독일 베를린 도이체 오페라 극장 한국인 바리톤 최초 솔리스트 역임
- 독일 함부르크 및 아우크스부르크 오페라 극장 전속 주역 가수 역임
- 벨베데레, 베니아미노 질리, 소냐 왕비, 툴루즈, 마리아 칼라스, 비냐스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프랑스 Lamoureux 오케스트라 등과 함께 베토벤 '합창 교향곡9번', 브람스 '레퀴엠' 등 협연
- 런던 코벤트가든 극장, 프랑스 툴루즈극장, 예술의 전당, 국립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등에서 <피가로의 결혼>, <일 트로바토레>, <카르멘>, <나비부인>,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라 보엠>, <살로메> 등 다수의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교수



만토바 공작 Ten. 유준호

Il Duca di Mantova Ten. You Junho

-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독일 뮌헨 국립음대 오페라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스위스 성악콩쿠르 Carmen 1위, 독일 뮌헨 Gasteig 음악콩쿠르 1위, 독일 뮌헨 Vokal Genial 국제콩쿠르 1위, 스위스 로잔 Marcello Viotti 국제콩쿠르 3위, 오스트리아 Ferruccio Tagliavini 국제콩쿠르 3위, 중앙콩쿠르 3위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수상
- <마술피리>, <코지 판 투테>, <돈 조반니>, <라 보엠>, <투란도트>, <라 트라비아타>, <카르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탄호이저> 등 다수의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
- 현) 오스트리아 빈 폭스오페(Wien Volksoper) 솔리스트



리골레토 Bar. 레온 김(김한결)

Rigoletto Bar. Leon Kim

- 한양대학교 성악과 졸업
- 이탈리아 피렌체 Conservatorio di Musica Luigi Cherubini 석사 - 바리톤 고성현, Donatella Debolini, Anna Toccafondi 사사
- 2017년 도밍고 국제콩쿠르 "Operalia" 3위 및 롤렉스 청중상 수상
잔도나이, 포르토피노, 까푸칠리, 파도바, 줄리오네리, 삐아첸차, 싸르자나 국제콩쿠르, 중앙 콩쿠르, 동아 콩쿠르, 세일 콩쿠르, 상정 콩쿠르 등 다수의 콩쿠르 입상
- 2017년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서거 10주년 기념 음악회"
바리톤 고성현,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 공연
-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카르멘>, <라 보엠>, <아이다>, <라 트라비아타>, <토스카>, <맥베드>, <루이자밀러>, <시몬보카네그라>, <팔리아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포스카리>, <마스나디에리>, <가면무도회>, <사랑의 묘약>, <운명의 힘> 등 유럽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 중
- 현) 이탈리아 최고의 에이전시 "Stage Door" 소속 성악가



만토바 공작 Ten. 권재희

Il Duca di Mantova Ten. Jay Kwon

-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성악전공
- 베르디국립음악원 수석입학 및 졸업
- 밀라노 라 스칼라 아카데미 최고연주자과정 디플롬 졸업
- 프란체스코 알바네제 국제콩쿠르 특별상, 줄리에타시미오나토 국제콩쿠르 1위, 마체레타오페라페스티벌상 수상, Voce Arena di Verona 콩쿠르 1위
-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베를린 슈타츠오페, 우크라이나 키예프국립오페라극장, 아레나디 베로나, 카타니아벨리니오페라극장, 모데나파바로티극장, 크레모나폰키엘리극장, 러시아 모스크바볼쇼이국립오페라극장, 독일칼스루에극장 등에서 <도둑의 기회>, <투란도트>, <로미오와 줄리엣>, <호수의 여인>, <라 보엠>, <장미의 기사>, <리골레토>, <파우스트>,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등 다수의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
- 현) 후지와라 오페라단 정단원 및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성악 전공 교수

CAST

출연진



질다 Sop. 장원친

Gilda Sop. ZHANG WENQIN

- 중국국가대극원 전속 소프라노
- 제11회 중국 음악 금종상(Chinese Music Golden Bell Awards) 벨칸토 부문 금종상 수상
- 제2회 하얼빈 국제 음악 콩쿠르 성악 부문 2위
- 레나토 브루손 국제 성악 콩쿠르 1위 및 레나토 브루손 특별상 수상
- 제2회 국제 대학생 오페라 성악 콩쿠르 1위
- 제3회 파올로 코니 오페라 성악 콩쿠르 1위
- 제3회 전국 고등교육 예술가곡 콩쿠르 대학원부(프랑스 예술가곡) 1위
- 국내외 다수의 주요 성악 콩쿠르에서 입상 및 수상
- <피가로의 결혼>, <호프만의 이야기>, <가면무도회>, <라 보엠>, <잔니 스키키>, <백설공주>, <코지 판 투테>, <마술피리>, <돈 조반니>, <리골레토>, <사랑의 묘약> 등 다수의 오페라 주·조역으로 출연
- 중국 음악가협회 주관 국가 청년 성악 엘리트 양성 프로그램 참여
- 중국 문화관광부 주관 제1회 전국 성악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우수 성악 인재' 선정



질다 Sop. 이혜정

Gilda Sop. Lee Hyejung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수석 졸업
- 독일 드레스덴 음악대학 디플롬 졸업(독일DAAD 국비 장학생)
- 뉴욕 메네스 음악대학 석사 졸업
- 인디애나 주립대학 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동아 음악 콩쿠르1위, 난파 음악 콩쿠르 대상,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중앙 음악 콩쿠르2위, 시즈오카 국제 콩쿠르, 뮌헨ARD 국제 콩쿠르, 마리아 칼라스 국제 콩쿠르, 뮌헨ARD 국제 콩쿠르, BBC 카디프 국제 콩쿠르 파이널리스트 등 다수의 콩쿠르 우승 및 입상
- 미국3대 극장인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에서 한국인 여성 최초 존 아담스의 <Nixon in china> 마담마오 역으로 데뷔
- 독일 킬 오페라극장, 칼스루에 오페라극장 전속 가수 역임
- 유럽 전역, 미국과 한국에서 <호프만의 이야기>, <몽유병의 여인>, <라 트라비아타>, <마술피리>,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피가로의 결혼>, <리골레토>, <한여름 밤의 꿈>, <로젠 카발리에>, <돈파스칼레> 등 다수의 오페라 주역으로 출연
- 존 아담스의 <Girls of the Golden West> 실황CD 발매(LA 필하모닉&월드 디즈니 콘서트홀)
- 현) 국민대학교 성악과 교수



스파라푸칠레 Bass 류지상

Sparafucile Bass Ryu Jisang

- 연세대학교 성악과 졸업
- 독일 쾰른 국립음악대학 석사 과정 및 최고연주자 과정 수석 졸업
- 그리스 마리아 칼라스 그랑프리 국제 콩쿠르 대상
- 스위스 에른스트 헤펠리거,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등 6개국 13회 국제콩쿠르에서 우승과 입상 및 독일 프랑크푸르트 극장상 수상
- 독일 베를린 도이치 오퍼, 하노버 슈타츠오퍼, 그리스 국립오페라 등 유럽의 주요극장 및 국립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등에서 오페라 주역 출연
- 벨기에 브뤼셀 심포니, 스위스 베른 심포니, 루마니아 방송교향악단, 덴마크 올보르 심포니, 그리스 국립오케스트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테이트 심포니, 오스트리아 케른터너 심포니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와 공연
- <나부코>, <토스카>, <카르멘>, <돈 조반니>, <파우스트>, <루살카>, <마술피리>, <예프게니 오네긴>, <라인의 황금> 등 다수 오페라 주역 출연
- 현) 유럽 Wolfsbauer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유럽과 한국에서 활동 중



막달레나 M. Sop. 서미선

Maddalena M. Sop. Seo Miseon

-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이탈리아 로마 아카데미아 디 까브리니 디플로마
- KAAD 오페라 최고 연주자 과정
- 로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코리아쿰 오케스트라, 광주 시향, 전남 카메라타 등과 함께 베토벤 '나인심포니', 모차르트 '대관식미사', 마틴팔메리 '탱고미사', 생상스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솔리스트 역임
- 국립극장, 아르코 예술극장, 부산 콘서트홀, 대구오페라하우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다수의 오페라, 콘서트 출연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라 트라비아타>, <신데렐라>, <마술피리>, <헨젤과 그레텔> 및 창작오페라 <미인>, <공연예술 창작산실 선정작-3과 2분의 1>, <명랑선화> 등 출연
- 현)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CAST

출연진



보르사 Ten. 유호제

Borsa Ten. You Hoje

- 대구예술대학교 성악과 졸업
- 계명대학교 성악과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 독일 카셀 시립음악대학(Musikakademie der Stadt Kassel) 전문연주자과정 성악과 졸업
- 국립오페라단 주최 오페라 <리골레토> 갈라 콘서트 출연 및 독일 Kassel Konzertchor, 대구시립, 경주교향악단, 부산 신세기필하모닉, 수성 필하모닉, 대구 필하모닉, 영남 심포니, 펠리체심포니 등 다수 오케스트라와 협연 및 수백 회의 공연 출연
- <나부코>, <오텔로>, <살로메>, <장미의 기사>, <리골레토>,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박쥐>, <집시 남자>, <잔니 스키키>, <외투>, <일 트로바토레>, <카르멘> 등 다수의 오페라에서 주·조역으로 출연
- 현) 계명대학교 공연예술대학 성악과 출강 및 각종 오페라와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조반나 M. Sop. 김예은

Giovanna M. Sop. Kim Yeeun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졸업
-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오페라과 석사과정 졸업
- 폴란드 국립쇼팽음악원 'From Chopin to Górecki' 과정 수료
- 뉴욕일보 NYIMC 국제콩쿠르 우승 및 뉴저지 상원의원상 수상
- 독일 헨펜펠트 시립교회, 헤르슈브루크 시립교회에서 헨델 '메시아', 베토벤 '교향곡 9번', 바흐 '요한수난곡·마태수난곡·칸타타', 모차르트 '레퀴엠', 생상스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의 솔리스트
- 뉴욕 카네기홀, 링컨센터 홀,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극장, 운터하링 극장, 국립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문화예술회관, 부산시민회관, 창원성산아트홀, 울주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카르멘>, <수녀 안젤리카>, <루나부인>, <동물원>, <라 트라비아타>, <마술피리>, <잔니 스키키>, <심청>, <살로메>, <파우스트> 등 다수의 오페라에서 주·조역으로 출연
- 현)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몬테로네 백작 Bar. 정제학

Monterone Bar. Jung Jehak

- 한양대학교 성악과 졸업
- 독일 에센 폴크방 예술대학교 석사 최고점 졸업
- 세일한국가곡콩쿠르, 광주성악콩쿠르 입상
- 독일 바그너협회 장학생
- 2024 사야오페라어워즈 남자조역상 수상
-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등에서 <세비야의 이발사> <장미의 기사>, <피가로의 결혼>,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천생연분>, <서부의 아가씨>, <세 개의 오렌지에 대한 사랑>, <나비부인>, <리골레토>, <잔니 스키키>, <박쥐>,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등 다수의 오페라에서 주·조역으로 출연
- 국립오페라단 상임 솔리스트, 국립 아카데미 강사 역임
- 현) KAN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한양대학교 성악과 실기강사 출강



마룰로 Bar. 권성준

Marullo Bar. Kwon Seongjun

-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졸업
- 이탈리아 라필라 국립음악원 오페라과 졸업
- 이탈리아 오르토나 토스티 국립가곡연구원 장학생
- 이탈리아 F.Stabile, V.Scaramuzza, A.Casella 등 다수의 국제성악콩쿠르 1위
- 이탈리아 로마, 포텐차, 페스카라, 아트리, 라필라극장 바흐, 생상,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오라토리오 협연 및 갈라콘서트 출연
- <세비야의 이발사>, <잔니 스키키>, <사랑의 묘약>, <카르멘>, <결혼보증서>, <헨젤과 그레텔>, <장미의 기사>, <로미오와 줄리엣> 등 다수의 오페라에서 주·조역으로 출연
- 현)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및 경북예고 출강

CAST

출연진



체프라노 백작 Bass 박준모

Count Ceprano Bass Park Junmo

-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2019 영남대학교 오페라 <사랑의 묘약> 돌까마라 주역
- 2013 계명대학교 콩쿠르 입상, 2020 대구음악협회 콩쿠르 2위, 2021 KPCS 콩쿠르 3위, 2023 드림성악콩쿠르 입상, 2023 한중연합콩쿠르 명예상, 2024 대구 음악교육신문사 콩쿠르 1위 등 다수 입상
- 2023-2024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수료
- 2024-2025 불가리아 소피아국립극장 <라 보엠> 데뷔 및 콜리네 출연
- 현)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파지오 Sop. 박주은

A Page Sop. Park Jueun

- 대구가톨릭대학교 성악과 졸업 및 동대학원 재학 중
- ITALY ADADS ACADEMY 수료
- 대구 스트링스콩쿠르 2등
- <호텔로>, <나비부인>, <파우스트>,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안드레아 세니에>, <일 트로바토레>, <카르멘>, <264, 그 한 개의 별>, <심청>, <장미의 기사> 등 다수 오페라 출연
- 현) SoundProtector 멤버, 대구오페라콰이어 정단원



체프라노 백작 부인 Sop. 이예지

Countess Ceprano Sop. Lee Yeji

- 계명대학교 성악과 및 예술대학원 졸업
-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밀라노 도니제티 아카데미 최고연주자 과정 수료
- 2018년 제2회 이탈리아 프레미오 니콜라 디 스테파노 콩쿠르 2위, 2014년 제 20회 마산음악협회 콩쿠르 특상, 제6회 우봉아트홀 주최 콩쿠르 금상
- 이탈리아 디비아니 극장 '콘체르토 칸토 리리코', 헝가리 보쇼크 뮤직페스티벌 갈라콘서트 출연
- 달서아트센터, 프란츠 클래식 오푸스raum, 앙상블리안홀, 어뮤즈사운드, 아울러서 주최 다수 콘서트 및 리사이틀 출연
- 대구오페라하우스 <라 트라비아타>, <일 트리티코>, <피가로의 결혼> 주·조역 출연
- 2025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수료
- 현)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궁정 전령 Bar. 김준년

Court Usher Bar. Kim Junnyun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 국립안동대학교 공연예술음악과 수석 졸업
- 이탈리아 성악회 전국성악콩쿠르 대학부 3위
- 에스토니아 사아레마 오페라 페스티벌 참여
- 하이든 '천지창조' 솔리스트
- 오페라 <라 보엠>, <마술피리>, <심청>, <나비부인> 주·조역 출연
- 2021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수료
- 현) Ensemble N.O.V 대표, 대구오페라콰이어 정단원

CAST

출연단체

디오오케스트라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대표 박은지 기획실장 이은배 공연감독 정은영 악보담당 박상은
 Violin 1 박은지 조현선 장혜지 장세희 이은영 박민서 노수균 김재은 이지애 양수빈 김시현 최혜지
 Violin 2 이소희 류가현 장유진 김현비 장혜진 김재민 장지은 김지현 박나연 김하은
 Viola 배은진 조재형 박선영 조민지 김효원 서민정 김예송 박채린 Cello 강윤선 설예은 최재영 박소현 박소희 손문주
 Double Bass 함소현 김지정 김재현 Flute 이한나 백선미 Oboe 배민주 김재운 Clarinet 김민수 전다양
 Bassoon 조혜연 조운주 Horn 양삼영 김태우 고해원 손수진 Trumpet 전성화 이혜연 Trombone 김진욱 이민정 이태웅
 Tuba 박종범 Timpani 권혜진 Percussion 이희정 송미경 Banda Clarinet 윤성훈 김나영 김세연
 Banda Horn 송상호 김동현 신지수 Banda Trumpet 정민재 문서인 Banda Percussion 허동훈 박지훈 Banda Tuba 김성민

대구오페라콰이어 Daegu Opera Choir



대표 김지영 음악감독 김성환 안무장 배은경 반주자 류지원 임윤지
 Ten. 윤덕환 민경휘 이승현 전지훈 이유현 서영덕 오시윤 강혜성 김동현 임현빈 홍원
 Bass 김준년 문형우 박종섭 조해준 정영진 유승민 이승훈 장재영 박건아

카이로스 댄스 컴퍼니 Kairos Dance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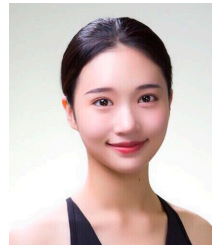
대표
김영남



만토바 공작 부인
박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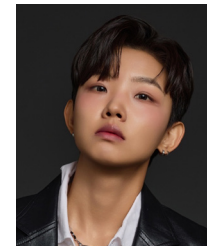
몬테로네 백작 딸
최서아



블
박지수



여름
류정인



가을
김선애



겨울
장민주



박예진



김채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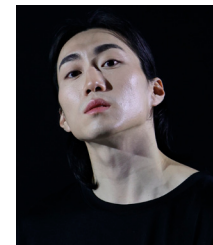
박소정



전소영



이태훈



권윤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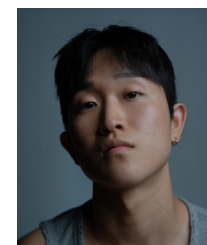
조은체



김예원



조동혁



황창대

STAFF

제작진



무대디자이너 엘레오노라 페로네티

Stage Designer Eleonora Peronetti

- 이탈리아 밀라노 나바(NABA) 국립미술원 졸업 및 현 교수 재직
- 거장 마르게리타 팔리를 사사하며 오페라, 연극 및 전시 프로젝트 협업
- 2019년부터 안젤린 프렐조카주의 <겨울 나그네>, <레퀴엠> 등 의상 디자인
- 연출가 다비데 리베르무어의 핵심 파트너로 <투란도트>, <발퀴레> 등 무대 설계
- 2024년 라 스칼라 극장 <투란도트> 무대로 '비월드 페스티벌' 수상
- <칸 솔탄> 무대 디자인으로 카자흐스탄 평론가 협회 '올해의 공연상' 수상
- 오페라 <라 보엠>, <라인의 황금>, <발퀴레>, <팔리아치> 등 무대 디자인
- 마르코 멩고니 등 유명 아티스트의 콘서트 무대 및 패션 이벤트 디자인 참여
- 오페라 롬바르디아 등 다수의 국제 무대 디자인 공모전 우승 및 수상
- 2026년 몬테카를로 오페라 <발퀴레>, 로시니 오페라 페스티벌 무대 예정



의상디자이너 마리아나 프라카소

Costume Designer Mariana Fracasso

- 이탈리아 토리노 외국어문학부 졸업 및 I.E.D. 디자인 학교 교수 역임
- Max Mara, Ferrari 등 글로벌 브랜드 의상 디자인 협업
- Bertone, Fiat 등 자동차 인테리어 디자인 및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전용차 제작 참여
-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러시아 볼쇼이 극장,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 세계 주요 극장에서 다수 의상 제작
- 2017년 라 스칼라 극장 <타메를라노> 의상 디자인
- 2020년 FIFA 풋볼 어워즈 무대 의상 및 메종 불가리 협업 스타일링 담당
- 2023년 메종 들체앵가바나 영화 'The Opera!' 코스튬 코디네이터
- 2024년 라 스칼라 극장 <투란도트> 의상 디자인
- 2025년 중국 NCPA <발퀴레>, 독일 바덴바덴 페스티벌 <나비부인> 의상 디자인
- 2026년 이탈리아 카타니아 벨리니 극장 <안드레아 세니에> 의상 예정



무대디자이너 파올로 젽 쿠코

Stage Designer Paolo Gep Cucco

- 영화감독이자 가상 무대 디자이너이며,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D-WOK'의 대표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2025년 첨단 가상 프로젝션을 활용한 영화 <The Opera! Arias for an eclipse> 공동 각본 및 감독(20여 개국 개봉)
-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최초의 전면 디지털 무대 디자인 및 중국국가대극원(NCPA) AI 시각 디자인 제작
-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4시즌 연속 개막작 쇼 디자이너 (역대 최대 2,200만 시청자를 기록한 <토스카> 참여)
- 두바이 워터 운하 및 메트로 엑스포 개통식, 제25회 아라비안 걸프컵, 2009 세계 수영 선수권 폐막식 등 대규모 행사 연출
- 티치아노 페로, 마르코 멩고니, 체사레 크레모니니 등 주요 아티스트의 대형 스타디움 및 아레나 투어 시각 디자인 총괄



영상디자이너 D-WOK

Video Design D-WOK

-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 다비데 리베르무어(Davide Livermore)와 쇼 디자이너 파올로 젽 쿠코(Paolo Gep Cucco)가 공동 설립
- 공연 예술, 기술 혁신,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을 융합하는 이탈리아의 크리에이티브 기업
- 디지털 무대 미술, AI, 실시간 3D 제작, CGI 등을 활용한 시각적 스토리텔링 및 몰입형 환경 구축
-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아이다(Aida)> 디지털 무대 디자인
-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Teatro alla Scala) 4시즌 연속 개막작 디지털 무대 디자인
- 라 스칼라 극장 개막작 <별을 다시 보러(A riveder le stelle)> 증강현실(AR) 시스템 개발
- 제25회 아라비안컵 개막식, 두바이 워터 운하 개통식, 모나코 및 바레인 국경일 행사 참여

STAFF

제작진



조명디자인 안토니오 카스트로

Light Designer Antonio Castro

- 스페인 안달루시아 출신, 전기공학 전공 및 무대 설계·디자인 우등 졸업
- 스페인 말라가 카노바스 극장(Cánovas Theater) 조명 기술자로 경력 시작
- 말라가 예술대학, 무용 보존소 및 안달루시아 공연 연구 센터(Escénica) 협업 활동
- 2006-2022 이탈리아 발렌시아 레이나 소피아 예술궁전(Palau de les Arts) 상주 조명 디자이너 역임
- 세계적인 극장 및 예술단체와 협력하며 연극, 무용, 라이브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조명 설계
- <피가로의 결혼>, <디도와 에네아스>, <바스티앙과 바스티엔느>, <라 보엠>, <오텔로>, <노르마>, <이도메네오>, <돈 조반니>, <마술피리>, <나비부인>, <토스카>,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마크베스>, <아이디다>, <호프만의 이야기> 등 오페라 조명 참여
- 2014년 <운명의 힘(La forza del destino)>으로 스페인 '캄포아모르 어워즈' 최우수 오페라 프로덕션 부문 수상
- 현) 유럽 및 세계 주요 극장에서 프리랜서 조명 디자이너로 활동 중



조연출 디에고 밍골라

Assistant Director Diego Mingolla

- 이탈리아 토리노 국립음악원, 휴고 볼프 반주자 전문학교, 토리노대학교(DAMS) 졸업
- 피아니스트, 작곡가, 편곡가, 음악 코치 및 조연출로 활동하는 다재다능한 음악가
- 국제 성악 및 실내악 콩쿠르 다수 수상
- 바르바라 프리톨리, 미렐라 프레니 등 세계적 성악가들과 협업
- 인도 뭄바이 국립공연예술센터(NCPA)에서 솔리스트, 협력 피아니스트, 조연출로 활동
- 제네바 Les Rencontres Lyriques 보컬 코치로 활동, 자크 오펜바흐 레퍼토리 전문가
- <마님이 된 하녀>, <가짜 여정원사>, <바스티앙과 바스티엔느>,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코지 판 투테>, <마술피리>, <세비야의 이발사>, <이탈리아의 알제리 여인>, <신데렐라>, <카폴레티와 몬테키>, <몽유병 여인>, <사랑의 묘약>, <돈 파스칼레>,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일 트로바토레>, <가면무도회>, <돈 카를로>, <라 보엠> 등 다수의 오페라 작품 참여
- 현) 니켈리노 시립 음악학교 교장,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 초연 예정 신작 오페라 프로젝트 참여 중



조연출 장소희

Assistant Director Jang Sohee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졸업
-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졸업
- 오페라 <나비부인>, <아이디다>, <투란도트>, <심청>, <토스카>, <살로메>, <안드레아 세니에>, <장미의 기사>, <264, 그 한 개의 별>, <일 트로바토레>
- 오페라 콘체르탄테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박쥐>, <미인> 등 다수 작품 조연출
- 무장애 접근성 활성화 <La traviata> 연출
- 현) 국내·외 프로덕션에서 전문 조연출로 활동 중

STAFF

제작진



오페라코치 은빛나

Opera Coach Eun Bitna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피아노과 및 동대학원 졸업
-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아카데미 및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오페라코치과 졸업
- Ottorino Respighi 국제반주콩쿠르, A.I.D.M 국제반주콩쿠르 입상
- 2024 사야오페라어워즈 수상
- 오페라 <아이다>, <나부코>, <토스카>, <라 보엠>, <안드레아 세니에>,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세비야의 이발사>, <장미의 기사>, <심청> 등 다수 작품에서 오페라 코치 역임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계명대학교 출강 및 서울대학교 반주 강사



반주 박선민

Accompanist Park Sunmin

- 영남대학교 피아노과 졸업 및 동대학원졸업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마스터과정 수료
- 이탈리아 도니제티 아카데미 반주 디플롬
- 영남대학교 강사, 경북도립예술단 피아니스트 역임
- 2024 사야오페라어워즈 수상
- <까르미나부라나>, <베르디 레퀴엠>, <포레 레퀴엠>, <메시아>, <대관식 미사>, <나인 심포니> 등 다양한 합창곡 연주
-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시립오페라단 등 수십여 편 오페라, 콘서트 반주 및 연주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투란도트>, <아이다>, <나비부인>, <마술피리>, <토스카>, <돈파스칼레>, <팔리아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박쥐>, <카르멘>, <리골레토>, <세비야의 이발사>,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라 보엠>, <장미의 기사>, <일 트로바토레> 등 참여
- 현) 대구오페라하우스 피아니스트, 대구예술영재교육원 강사, 대구음악협회 이사,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PRODUCTION STAFF

프로덕션 스태프

연출 다비데 리베르무어	무대조감독 이남문	의상팀 선미무대의상 감독 박선미 팀장 김현지 김명준 이지예 김성현 김창근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Daegu Foundation for Cultures & Arts Daegu Opera House
지휘 김광현	소품수 박세은 조영서	분장팀 에리카 메이크업 스튜디오 감독 김언영 팀장 김수정 이혜민 이하늘 김호련 이서연 배서희	공연예술부장 김수정
공동연출 알렉산드라 프레올리	오페라코치 은빛나	영상촬영팀 나무앤숲	공연기획팀 팀장 최은정 이한나 최서윤 한규리 최보운
무대디자인 엘레오노라 페로네티 파울로 쟈 쿠코 다비데 리베르무어	반주 박선민	사진촬영팀 용스튜디오	무대시설부장 강영구
의상디자인 마리아나 프라카소	이탈리아어 통역 도민영	무대제작소 중국국가대극원 타이후 무대예술센터 무대예술제작소	국제교류팀 팀장 김민정 박형기 심유진 박새별 강지운
영상디자인 D-WOK	중국어 통역 이경립	의상제작소 중국국가대극원 타이후 무대예술센터 무대예술제작소 / 북경 주씨형제 과학기술개발 유한공사	홍보마케팅팀 팀장 정유경 김유리 백지연 최수민
조명디자인 안토니오 카스트로	영어 통역 전다솜 이주원	소품제작소 북경 경명 문화발전 유한공사	무대예술팀 팀장 박병달 문길환 차광석 김태학 박준환 정진섭 조원호 김남오 최진영 이남문 조현우
영상기술 살보 노스트라토	자막오퍼레이터 허성훈	분장제작소 북경 고고락 문화전매 유한공사	시설관리팀 팀장 이철훈 장성훈 김우성
무대총괄 박병달	영상오퍼레이터 서보완		
무대감독 정진섭	무대디자인 어시스턴트 유다미		
조명감독 문길환	무대크루 최대현 구민우 이아영 정종극 김우립 전진룡 김태현 이승준 심건수 원현지		
음향감독 차광석	조명크루 김병중 정유진 금명정 김준수 배수영 류수진		
조연출 디에고 밉골라 장소희	음향크루 최지희 최이담		

